

Yullin Newsletter

APR.

4

열린교회 신문 2022.4 vol.322



말씀솔루션

한번에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경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불신자의 행동함과 신자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한 번에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모든 날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평생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한 번의 무지가 들어오고 그 무지가 침체를 불러일으키니 한 번에 흔들린 것입니다.

이 73편에 나타나는 영적인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지입니다. 죄나 유혹만이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지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기력을 쓸 수 없도록 만들고 마지막에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 이것이 무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무지는 악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찾아오는 현상은 지성에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의 조짐은 안개가 걷히면서 어렵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면서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런 영적인 삶의 비밀을 파헤쳐서 간파하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시인이 회복된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17절).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깨달으니 침체의 독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시인은 거기에서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신보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종말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무지가 풀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

〈시편 73편 강해〉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시편 73편 강해1/시편 73편 강해2/시편 73편 강해3 세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열린교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김남준 담임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부하고는 답썩은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외부적인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세계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얼마나 바꿔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꾸려 해도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 습관의 뿌리가 되는 마음 자체를 고치는 일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심령은 인간 마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심령에 변화가 생기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파장은 지, 정, 의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존재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사령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를 주인 삼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은 그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

제를 상실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껏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그 불행한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심령이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을 실으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의 변화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은 '프로코스'로 '가진 것이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안 살림에 노란 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갑자기 밀어다칩니다. 빚쟁이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남의 살림에 자꾸 참견이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프로코스'입니다. 이것은 예수 외에는 아무 데도 구원의 길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부서진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거들먹거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내일 괜찮아질 것이라는 회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을 덜 의지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덜 구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깊은 밤, 항상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

기독교의 관심은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파산당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

”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인은 커다란 곤궁에 처했을 때나 대적에게 에워싸여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과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시 62:6-7). 이는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인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깨닫고 싶어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될 것이며 갈 바를 모르는 발걸음에 등불이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시119:105).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책 없이 살아오던 우리의 옛 삶을 청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자기가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하나님께서서는 일평생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

담임목사 동정

- 4.7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섬김의 날
- 4.9 개혁신학회 주재발표
- 4.11-13 고난주간 십자가사경회
- 4.14 총신대 신대원 섬김의 날, 총회 세미나 강의
- 4.15 고난주간 연합기도회
- 4.16 어린이 회심집회 설교
- 4.17 열청캠프 설교
- 4.18 동서울노회
- 4.21 고신대 신대원 섬김의 날
- 4.26 목회자 사모세미나 강의, 실시간 구역공과
- 4.28 대신대학교 섬김의 날
- 4.30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개강예배 설교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열청번개토크쇼 후기

또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우리 청년부
ggg858@naver.com

청년부 번개토크쇼에 참석하고자 마음먹었던 이유는 주일 설교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의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교가 선포되던 주일, 죽음이 지배했던 마음속에 생명을 느꼈다.

나는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고통으로 다가올 정도로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위 제목의 설교가 선포되던 날은 설교시간이 정말 길었다. 하지만 너무 길었기에 설교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삶에 비춰볼 수가 있었다. 비춰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난 왜 이리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까?’ 목사님은 ‘하늘’과 ‘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허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시야’에서 판단했기에 그렇게도 절망스러워 했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교회에 출석해왔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문장이 마음속 깊이 들어옴을 느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삶에 지쳐 주저앉던 모습,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했던 모습 등 ‘나다움’에서 나오는 모든 몸짓들을 작품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느껴지며 지성의 회전이 일어났다. 익숙한 사랑의 진리가 마음에 들어온 순간,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던 불행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다 괜찮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 하시기에 괜찮았다. 그게 전부였다.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나의 불행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픔을 곱씹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것을 현재로 끌어오면 지금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토크쇼 목사님 말씀 중)

은혜를 받으면 삶을 향한 힘이 생기지만, 사실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고통은 언제나 영혼을 삼키려 버리고 있으며, 죄 된 본성은 고통 쪽으로 자꾸만 이끌릴 것이다. 그래

도 괜찮다. 이 시간부로 괜찮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으니 말이다. 은혜를 통해 또다시 건디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 됴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다. 죄인이기에 겪는 불행들이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불행에 묶여 낙심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공하심이 삶 전체에 존재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공하심을 느끼며 은혜 속에서 다시 다짐한다. 불행의 원인들 역시 선하신 계획 속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이겨내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픈 기억이 과거의 작은 점이 됴을 느낀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있음을 느낄 때,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은 행복을 느끼기에 오늘도 달려간다. 무거운 세상이 행복의 수단이 되는 신비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또 다시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



번개토크쇼 스케치

2022년 2월 20일 주일 4부 예배시간에 설교되었던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인생의 허무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이들에게는 의문이 풀리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이 떠오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김남준 목사님과 함께 하는 청년부 번개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이 현장에 참여하였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토크쇼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부 순서로는 ‘고통과 통증에 관한 질의응답’이, 2부 순서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현장이벤트: 인생의 무게를 날려라’를 통해 현재 청년들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무게를 가볍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크쇼 영상은 열린교회 청년부 유튜브채널(YULLIN YOUTH)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웅 청년부디렉터 pcw0109@naver.com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새가족

장년

김준규(88) 유재은(92)
양혜은(90) 손수동(82)
오승준(79) 성슬기(87)
정윤주(84) 이송이(83)
김민기(90)

청년

기선아(87) 조현우(95)
황애선(85) 홍지우(92)
김태훈(94) 주한세(98)
조현서(95) 조용제(82)
정성호(95) 안예지(95)

4월 주요사역

2일(토)~30일(토)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 / 청소년 학부모교실
3일(주일)~10일(주일) 산불 피해 구제 헌금
7일(목)~28일(목) 기도학교(주중반)
9일(토)~30일(토) 기도학교(주말반)
11일(월)~16일(토) 고난주간
11일(월)~13일(수) 고난주간 새벽 십자가 사경회
14일(목)~15일(금) 고난주간 교구별 새벽 기도회
15일(금) 고난주간 연합 금요기도회
16일(토) 어린이 회심집회
17일(주일) 부활절 / 열청캠프
23일(토)~5월 28일(토) 제14기 신약개관학교

4월 추천도서

악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박순용 저/생명의말씀사

<악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는 ‘악과 고통’에서 시작된 신자의 순례길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조명해 줍니다. 먼저 악과 고통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기독교적 태도’를 설명하고, 쓰라린 절망 가운데 ‘어찌하여’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탄식’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대다수 사람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이 가져오는 진정한 문제’를 드러낸 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게 하며, 종국에는 ‘모든 악과 고통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들이 상속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까지 독자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청소년수련회 (고등부)후기

무너진 신앙 회복의 자리



윤준서 고등부 1학년



저는 작년부터 신앙심이 정말 약해져 저 자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도 자주 빠먹었고, 이번 수련회도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해가며 2일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참석했습니다. 이 수련회는 저의 17년 인생 중 가장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날 설교 말씀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

시자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또한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에 도망을 친 것이겠죠. 그러나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떠올리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에 저 자신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나 자신이 조금 힘들어진 순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과거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탓하고 부인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며 저를 수련회 자리 가운데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설교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한의 고통과 참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며 정말 많

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했고, 또 죄인인 나를 예배의 가운데 다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 번 고백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계기로 저의 무너진 신앙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예배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신 고등부 선생님,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심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에게 한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며 다시 십자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다 죽어가던 저를 살리시고 다시 예배 가운데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

청소년수련회 (중등부)후기

마음의 천을 깨끗이 유지하기



승윤호 중등부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중고등부청소년 겨울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2시부터 6시까지 3일 동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기겁했다. 나의 얼마 남지 않은 방학시간을 집에서 뒹굴며 보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난 후회하지 않았다.

첫째 날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보는 교회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분 좋았다. 첫째 날 집회는 원래 모르는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못 오신 게 섭섭했다. 하지만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서 나로서는 좀 더 좋았다. 첫째 날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둘째 날은 내가 어렸을 때 전도한 친구와 함께 참여했다. 그 친구는 물론 내가 전도했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였다. 그 친구와 내가 이번 수련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첫째 날 프로그램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다.

둘째 날 집회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기름을 기름부음하는 내용이었다. 나도 하나님께 가진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다. 그 친구는 아쉽게도 집회 도중 학원 때문에 나갔다. 말씀은 집중해서 들은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믿음을 주시면 좋겠다. 둘째 날 기도 시간에 나는 내가 가진 걸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셋째 날, 아쉽게도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에 못 갔다. 그래도 집회하는 시간에 둘째 날의 그 친구를 데리고 갔다. ‘로 드웨이브’라는 찬양그룹이 와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셋째 날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요한이 잠깐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용기 내어 집행이다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고통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참 반성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처럼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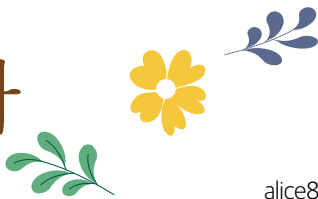
께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후회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 내가 바보 같았다. 쓸모없는 놈 같았다.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요한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원래 난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그래서 전에는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나는 정말로 내가 전도한 친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아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눈을 떠봤을 때는 다리가 먼저 아파왔다. 40분 동안 서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었다. 나의 영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고통받지도 않았다. 그저 기쁨과 감격 그 자체였다. 그렇게 수련회는 끝났다. 내 마음은 비유하자면 더러워지기 쉬운 하얀 천 같은 걸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그 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닦지 않도록 조심하고 매일 빨아야겠다. ☆

청소년수련회 (학부모)후기

아이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정은 장년6교구
alice80.na@gmail.com



길고 긴 겨울방학의 끝자락에서 청소년 수련회와 회심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창 신앙에 질문이 많아 지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본격적인 사춘기 전에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 자유하고 기쁘게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4학년 회심집회 때 학부모 기도회에서 혼신을 다해 기도하며 아이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던 기억,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놀라움과 신남을 주체하지 못하던 아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수련회 3주 전부터 시작된 중등부 학부모 기도회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지만, 기도를 할수록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 청소년이 된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실까 하는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온 수련회 하루 전날, 호주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집회에 오실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그 자리를 김남준 담임 목사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방학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책 빌리러 도서관을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신앙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며 김남준 목사

님 설교를 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렸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을 통해 아이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아이가 질려서 내일부터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이는 통통 부은 눈에 진지한 얼굴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하고 문자,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신도 기도가 잘 돼서 별로 힘들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는 예수님께서 그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해서, 죄인인 자신의 존재가 비참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에 맞게 살고 있지 못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기도와 기대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며, 들은 말씀으로 나눔을 하면서 아이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자 간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안에 살게 하신 것에 또한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부은 눈으로 나오던 아이는 뜨겁게 눈

물로 기도하는 맛을 알았다는 말과 함께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던 예배당에서 앞자리로 앉으라는 한 선생님의 말씀에 “네.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로 가야죠.”라고 대답한 저희 아이에게 그 선생님께서 “은혜의 사모함이 있구나!” 하시면서 누구인지 이름을 물으셨다고 합니다. 분명 그 선생님께서는 말은 반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저희 아이의 이름도 부르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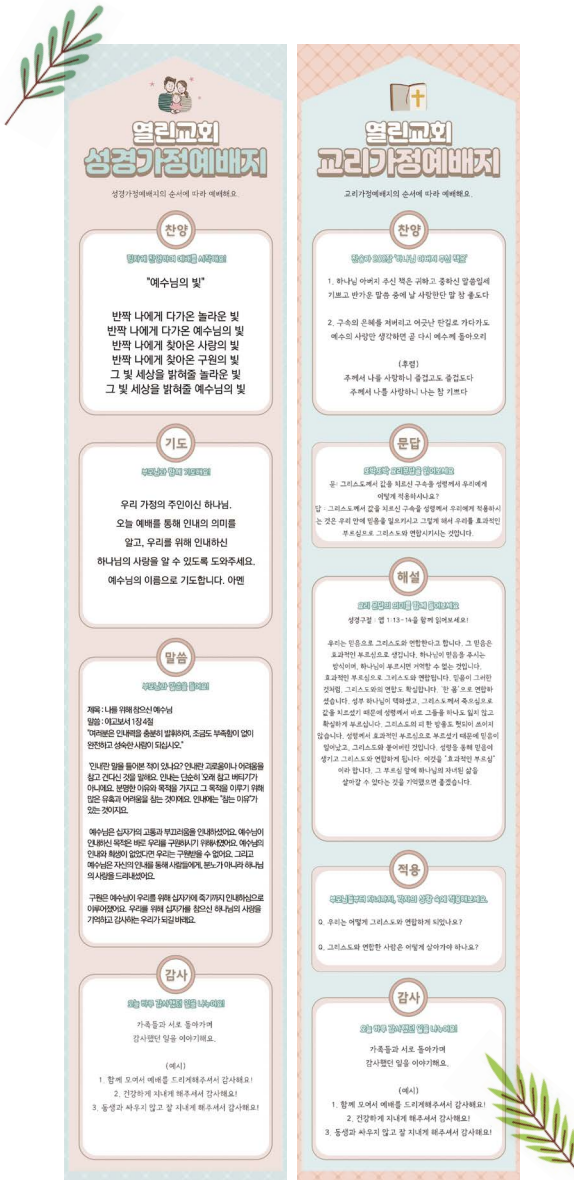
교회 광고 시간에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의 후기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열린교회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 사랑과 사명감으로 내 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눈물로, 기도로 키우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교역자님들의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기업인 우리 아이들. 부모로서 아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도록 돕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빛을 발하는 존재로 커가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빛어가실지 더욱 기대합니다. ☆

열린교회홈페이지

‘가정예배’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지연 유아부담당전도사
jyeon9309@naver.com



열린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두 가지 가정예배 코너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편(성경가정예배)과 교리편(교리가정예배)으로 구분되어 올라오는 가정예배 코너는 2017년부터 꾸준히 열린교인들 가정예배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예배의 내용들은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업로드해왔습니다. (이 작업에 함께했던 제가 본 주제를 정리하여 신문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더욱 깊이 인식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진행된 교사학부모세미나에서 미취학부는 지소영 작가를 초대하여, “우리아이 신앙생활 첫걸음: 가정예배”라는 주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가정예배를 개편하자는 안건이 나왔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께 더 실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가정예배와 교리가정예배가 새단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가정예배는 기존의 줄글로 해설 내용이 올라가는 대신 가정예배지의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열린교회 방송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홈페이지 가정예배를 이용하는 분들의 53.3%는 휴대폰을 이용해 가정예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가정예배지는 모바일에서도 말씀 해설의 내용이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도록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이 효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에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가정예배지는 ‘찬양-기도-말씀-감사나눔’, 교리가정예배지는 ‘찬양-문답-해설-적용-감사나눔’의 순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지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참고하시면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된 점은, 마지막 ‘감사나눔’ 순서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의 자리가 가족 구성원의 나눔의 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순서를 추가했습니다. 감사나눔 시간에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나누면 되고 이후 각자의 기도제목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존 ‘성경가정예배’는 66권의 성경을 6년에 걸쳐 한 번 볼 수 있도록, 성경의 각 책을 성경 차례대로 본문으로 선정하여 해설과 적용이 제공되었습니다. 개편된 성경가정예배는 주제(가정, 생태, 공동체, 성품, 평화, 용서, 사과 외 45개)와 절기(종려주일, 부활주일, 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에 관련된 말씀을 선정하여 해설이 제공됩니다. ‘교리가정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대한 해설과 해설에 대한 적용질문이 제공됩니다.

가정예배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내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장성하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찬송가 199장) 찬송하며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지요.

가족이 함께 시간을 정하고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교회는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계속 해서 돕고 함께하겠습니다. ☆

예비영아부학부모설명회

아가도 독립 예배자입니다



이경자 영아부부장
rode32@daum.net

열린교회 영아부는 돌이 지난 12개월부터 3세에 이르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의 가장 어린 나이의 부서입니다. 영아부 사역 중 하나로 예비영아부 아이들과 가정 섬김이 있습니다. 아직 영아부에 올 월령이 아닌 아이들과, 월령은 되었으나 영아부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가정에 주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예배를 안내하고 기도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예비 영아부 학부모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예배 소개와 출산 후 흐트러진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3월 6일에 상반기 예비 영아부 학부모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하던 방식과는 달리, 영아부 아이의 시선으로 앵글을 맞춰 영아부 예배의 입실과 퇴실까지의 전 장면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담당 교역자인 김민정 전도사님의 인사말과 영아부 자모이면서 교사인 김주희 집사의 간증(하단 참조), 교사소개, 담임목사님의 격려 순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하였습니다.

특히 김주희 집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신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여기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컸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작은 예배자로 세워질 길 기도합니다. ☆

~~~~~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아부에 오기 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온라인예배로 드렸습니다. 출산 후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겨우겨우 지나면서 어느새 아이가 돌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러 영아부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일 년 동안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



김주희 장년5교구  
ezkiel2@naver.com

어서 엄마를 유독 많이 찾았던 아이였기에, 혼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많이 울지는 않을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말도 하고 자기표현을 할 때쯤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고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주인 되시고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아이를 만족시켜주려고 했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시간으로 저는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는 무능함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아이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시간을 앞두고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저 혼자서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는 영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계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분리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역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주체자이기에 분리예배에 대해 설명해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셔서,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축복하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주 두 주 큰 소리로 울고 떨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며 저와 아이,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울음이 줄고 영아부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며 분리하여 한 명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았고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아이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온라인

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 인식되기보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찬양 시간에 즐겁게 찬양하다가 말씀시간엔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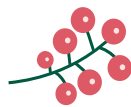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예배를 온몸의 감각으로 익히고 인식해야 하는 이 시기에는 현장 예배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린 시각적인 인상, 사랑받는 따뜻한 느낌, 말씀의 청각적인 자극들이 아직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아이들의 온몸에 새겨지고, 아름다운 예배로 인식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실하는 동시에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며 교회학교에 감사하고 안심하며 예배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영아부에 보내면서 저는 다시금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맡아서 양육하는 부모인 동시에 나는 위탁해서 기르고 있는 청지기로서 나와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독립된 예배자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점차 한 명의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예배를 통해 섬을 누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부르시고 나의 인생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리예배를 통해 아이도 저도 각자 독립적인 예배자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연합된 예배자로 바라보게 되는 통합적 시각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것을 다짐하기보다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 역시 수월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안심이 되는 것은 이를 위해 교회학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와 잘 협력하며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사랑부세미나 후기

#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이승지 청년부  
gwenidee12@gmail.com



올해 사랑부 섬김을 시작한 나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섬기는 지체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표현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다. 가까이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모가 계시지만 사랑부 안에 있는 지체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내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교사 교육을 통해 어렵듯하게나마 사랑부에 대해 알게 된 나에게 사랑부세미나 <따로 또 같이 함께하기>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3월 13일 경기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의 최혜선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장애의 개념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조언까지, 사랑부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었다. 장애인을 의존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

는다는 것, '장애 극복 신화'에는 장애를 극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비장애인 중심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 등 인식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당사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게 되었는데, 잘 몰라서 두려웠던 내 마음에 주는 대답 같았다. 생활 연령과 지적 연령이 다를 때, 대부분이 생활 연령에 따른 호칭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한다.

사랑부 교사로서 처음 들었던 당부 역시 사랑부 지체들의 생활 연령을 고려하여 '형제님', '자매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세미나를 듣고 나니, 이 당부가 이제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길라잡이처럼 느껴진다. 대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데에 훨씬 더 신경을 쓰지만 상대의 기분이 어떠한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반응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내가 아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세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초보 교사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물론 많은 공부가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부 지체들의 작은 반응도 예민하게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설픈 패기가 넘치기도 했다. 뒤이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사랑은 필요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 다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이 섬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되새길 수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도,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된 것도 많아 감사하다. 이제는 알게 된 것을 살아낼 차례인데, 섬기는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사랑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 다른 두려움이 움트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게 그럴 만한 사랑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기를 애써야겠다. ☆



만남 품은 열린교인

# 코로나가 막지못한 사랑



최동숙 장년3교구  
chois09-@naver.com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 공부 못한 사람을 찾기가 드물 듯이 나  
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이라는 운동은 모두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5학  
년 때 새로 전학을 온 친구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업 마치고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예배당  
옆 사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일 어린이 예배를 착실하게 다녔고 엄마는 현금 10  
원을 주시면서 그 어린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면 너도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이 가득차고 활달했던 성격인 저는 대학입시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가 아주 많이 꺾였고 자존  
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5월  
쯤으로 기억합니다. 성찬식 날 세례를 받는데 알 수 없는 죄의 고통이 밀려오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손수건과 휴지로 당황할 새도 없이 긴 팔 소매에 연신 눈물을 흘렸고 성가대에서 저를 보고 있던 친구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죄에 대한 통곡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은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180도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다녀도 하늘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고 온 세상이 감사로 넘  
쳤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심을 믿으니 두려움이 달아났고 고려 시대 무사 같았던 눈이 차츰차츰 선한 눈으로 변했  
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글씨를 예쁘게 잘 쓴다  
는 평으로 교회 대학주보인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배우게 되었고 깊  
은 성경공부와 책 토론을 통해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한 황금기를 이어갔습니다.

대학때 도서관자리는 새벽 6시면 다 차서 저는 비어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주인이 오면 옮기는 일명 때뚜기로 공  
부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같은 과 예비역 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 예비역 학생이 지금까  
지 함께 사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 직장이 안양이라 결혼하면서 안양의 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시서  
지내던 부산에서 안양으로 올라오는 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제 생활은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  
에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에서 교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를 업고 열심히 여전도회 회원들과 심방 다  
니던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별안간 지방으로 자원해서 이동 발령받아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중심인 읍에서 다시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때까지 넘치는 은혜는 지속되었습니다. 양  
산 내려가서 1년 후 둘째를 낳았고 둘째가 만 1살 때 맡겨주신 구역장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김남준 목사  
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는 책들은 양산에  
있으면서 설교자를 통해 듣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극에 달했을 때 만난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접함으  
로 저는 예배자로서 저의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변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며 불꽃  
처럼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10년 만에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2002년 10월 군포시 산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다 보  
니 열린교회가 평촌으로 이사 왔고 그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예배 시간이 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중교  
통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교회 차가 운행되는 교회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불편한 교통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터라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는데 나의 영적 생활은 이중적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목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갈등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17년 남편이 28년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강원도 홍천으로 이직을 하는 동시에 나는 열린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발생한 여러 원망이 가장 심할 때라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하  
게 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김남준 목사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에 각인하기가 힘들어 초집중하는 바람에 머리가 어지러웠던 적  
도 있었습니다. 20주간 성장반을 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조금씩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하나  
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는 잡혀갔고 상황이 정리되니 열린교회에 오기 전 말씀에 갈급한 내 영혼이 충분히 해갈되었습  
니다. 저에게는 코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3층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아계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황금기라고 말했던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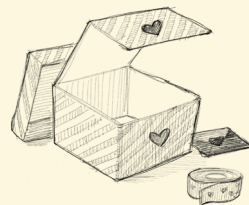
열린교회에서 목양을 받음으로 내 몫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더라도 피곤  
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가 균형이 잡혀 예배의 감격이 있는 열린교회에서 불꽃 같은 하  
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부르셨으니 나의 마지막 교회인 이 곳에서 섬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

곰곰이 생각

## 반듯하게 기다리는 껌데기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이 선물상자는 맛있는 케이크를 기다립니다.



이 턱시도는 멋진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껌데기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빈 마음일수록, 공허한 예배가 이어질수록  
더 반듯하게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이 빈껌데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립시다.



이것은 외식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2022

어린이 회심집회

날짜

4월 16일(토)

시간

미취학부(영아, 유아, 유치)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취학부(유년, 초등, 소년)

오후 3시 - 오후 5시30분

장소

영아부 별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 (4세)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

(5세) 세빛빌딩 2층 유아부실

유치부 세빛빌딩 3층 유치부실

유년부 열린빌딩 2층 유년부실

초등부&소년부 본관 3층 예배실







고난주간 새벽십자가사경회

\* 온라인으로도 송출되며,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예수  
When Jesus Was Crucified  
십자가  
지실 때  
(눅 23:34)

일시  
4.11(월)~13(수) 오전 5:15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고난주간 교구별 새벽기도회

일시 4.14(목)~15(금) 오전 6시  
장소 각 교구별 지정장소



고난주간 연합 금요기도회

일시 4.15(금) 오후 8시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담임목사  | 김남준                                                               |
| 시무장로  |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br>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
| 은퇴장로  |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 부목사   |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br>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 협동목사  | 정창욱 김성진                                                           |
| 전도사   | 곽해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br>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br>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
| 교육전도사 |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

파송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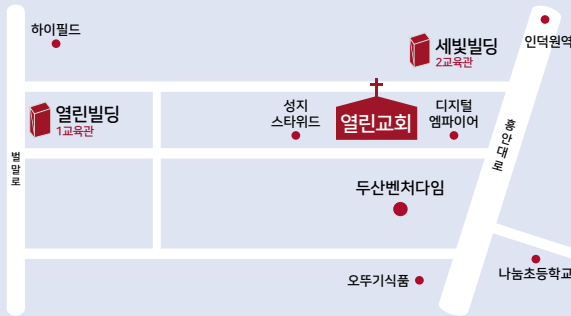
|           |                       |            |       |
|-----------|-----------------------|------------|-------|
| A국:       | 4units, B국:           | 1unit, C국: | 1unit |
| 말레이시아:    | 양연식 & 전희선             |            |       |
| 에스와티니:    |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       |
| 인도네시아:    | 신동진 & 정지현             |            |       |
| 국내 디아스포라: | 정진학 & 손원향             |            |       |

예배시간 안내

|                | 구분   | 시간                          |
|----------------|------|-----------------------------|
| 주일오전예배         | * 1부 |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
|                | 2부   |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
|                | 3부   |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
|                | 4부   |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
| *주일오후예배        |      |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
| 교회학교           | 영아부  |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
|                | 유아부  |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
|                | 유치부  |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
|                | 유년부  |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
|                | 초등부  |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
|                | 소년부  |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
|                | 중등부  |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
|                | 고등부  |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
| 사랑부            |      |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
|                |      |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
| 새벽기도           | * 1부 |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
|                | 2부   |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
| 수요예배           |      |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
| 수요섬김기도         |      |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
| 금요기도           |      |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
| *사랑부 토요교실      |      |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
| *소망교실          |      |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
| 중국인예배<br>中国人礼拜 |      |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
|                |      |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                        |
|-----------------|------------------------|
| 서울/과천           | 777, 441, 502, 540     |
| 안양              | 8, 8-1 군포 540, 8       |
| 성남              |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